

민간조사기관의 일본 경제전망(21년 5월 기준)

※이 자료는 第一生命經濟研究所『民間調査機関の經濟見通し（2021年5月）』『21年度は一進一退が続く見通し. 22年度はワクチン普及により經濟正常化へ』(2020.05.27.)를 요약, 정리한 것임

- 본 자료는 5월 25일까지 집계한 민간조사기관 18사의 일본 경제 전망을 종합한 것임
- 민간조사기관의 실질 GDP 성장률 예측 평균치는 2021년도는 전년대비 +3.5%(2월 시점 전망: 동 +3.8%), 22년도는 동 +2.6%(2월 시점 전망: 동 +1.8%)
- 2021년도는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에 의한 개인소비 정체로 2분기의 침체는 피할 수 없었고 3분기 이후에도 백신 보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동 재개와 감염 예방 조치의 반복으로 경기 회복 페이스는 완만할 전망이다
- 2022년도는 일본 국내 백신 접종이 진전되어 국내외로 회복 기조가 강해질 전망이고 서비스 소비의 회복 등에 의한 내수 회복도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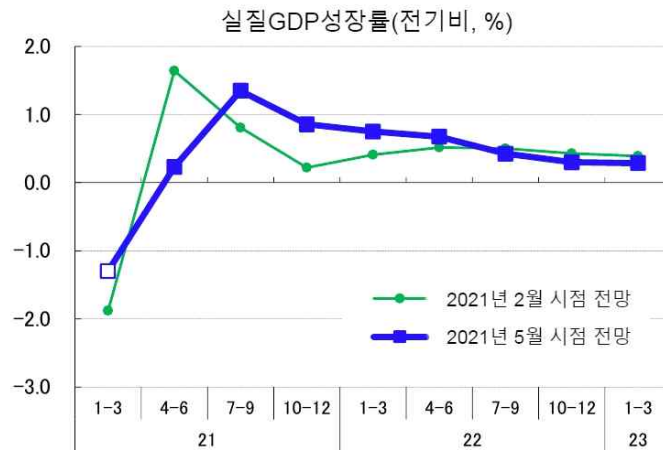
[2021년도]	실질GDP	개인소비	주택	설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수입	명목GDP	광공업생산	CPI(코어)	미국GDP
평균	3.5	2.8	0.5	2.8	1.0	12.8	6.3	3.0	9.8	0.1	6.4
최대	5.9	3.5	3.1	6.6	3.4	16.4	10.0	4.8	11.3	0.5	7.0
최소	2.6	2.2	▲1.7	0.6	▲1.6	2.5	▲0.8	1.8	8.0	▲0.4	6.0
제일생명경제연구소	3.3	2.8	0.9	2.8	1.6	13.0	7.2	2.8	11.1	0.3	6.5

[2022년도]	실질GDP	개인소비	주택	설비투자	공공투자	수출	수입	명목GDP	광공업생산	CPI(코어)	미국GDP
평균	2.6	2.9	1.3	3.4	0.8	4.7	3.6	2.9	3.6	0.5	3.5
최대	4.0	6.3	4.0	9.3	2.8	9.8	7.7	4.5	8.3	0.7	4.3
최소	1.1	0.9	▲2.3	0.7	▲2.1	0.5	▲0.6	1.7	0.3	0.0	3.0
제일생명경제연구소	3.1	3.9	2.1	3.4	2.1	4.9	5.1	3.7	3.9	0.7	4.1

□ 2021년 1분기는 전기대비 연 ▲5.1%로 3개월 만의 마이너스 성장

- 5월 18일 공표된 2021년 1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 ▲5.1%로 작년 4분기 이래의 마이너스 성장임
 - 코로나19 감염 재확대와 긴급사태 선언 재발령에 의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한 개인소비 감소가 성장을 억제함
 - 이 외에도 대면진료 기피에 의한 의료비 감소나 ‘GoTo 캠페인’ 중지에 의한 정부 소비 감소도 마이너스에 기여함
 - 설비투자는 전기에 높은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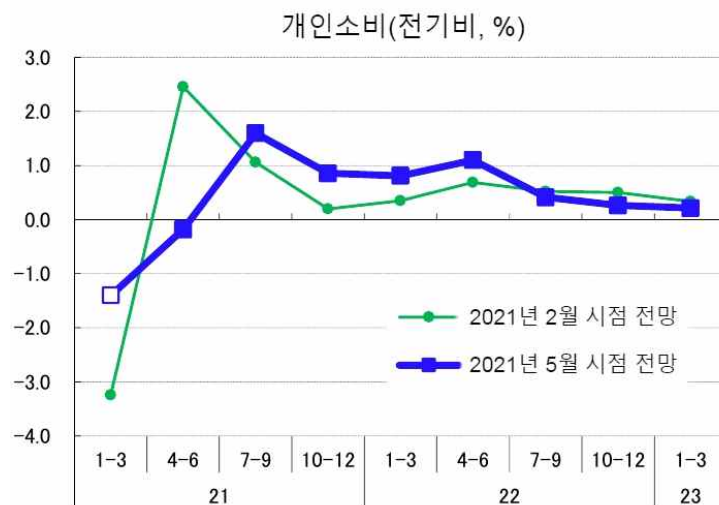
- 2021년도는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는 백신 접종 진전 기대가 높아져 경제정상화에



- 2021년도의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5%(2월 시점 전망: 동+3.8%)로 예상됨
 -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그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재발령에 의해 이전 전망보다 하향 조정하는 조사기관이 많았음
 - 2021년 3분기는 “3번째 긴급사태 선언으로 개인소비가 줄고 있음(신킨 중앙금고 지역·중소기업 연구소)” 등,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정체가 전망됨
 - 무엇보다 “민간 소비 이외의 수요 항목은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구조(닛세이 기초연구소)”라는 지적과 “해외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이나 설비 투자도 뒤따를 것(일본 종합연구소)” 등의 이유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것이라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2021년 2분기의 컨센서스는 +0.2% 소폭 상향됨
- 올해 3분기 이후에도 당분간은 일정한 경제활동 규제가 계속될 것을 상정하는 견해가 대세임
 - “당면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이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와 같은 경제활동의 제한을 단속적으로 실시(일본 종합연구소)”나 “백신 접종 지연으로 일본에서는 집단 면역 획득에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경제활동 정상화와 감염 확대 억제 간의 균형을 잡으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도레이 경영연구소)” 등, 일진일퇴의 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2021년도는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컨센서스임
- 2022년도 GDP 성장률 예측은 전년도 대비 +2.6%(2개월 시점 전망: 동+1.8%)이었음
- “백신 보급에 의해 경제활동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미츠비시 종합연구소)” 등, 코로나19 수습 기대가 높아져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관이 많았음

- “백신이 보급되는 2022년도 이후에는 고액의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펜트업 수요가 표면화(미즈호 리서치 & 테크놀로지스)” 등, 내수의 회복력이 강해지는 것도 예상됨
- 경제 하락 요인으로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감염 리스크가 큰 것을 들 수 있음
- 백신 접종의 지연이나 바이러스 변이 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감염 확대가 계속 되면 기업이나 사업주 간에 경기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짐으로써 고용 조정, 임금 삭감 등을 단행할 우려가 있음(미즈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요구되는 대응에서도 뒤떨어지고, 중장기적인 성장력에서도 주요국과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미즈비시 종합연구소)” 등, 영향의 장기화에 의한 성장력의 하락 염려가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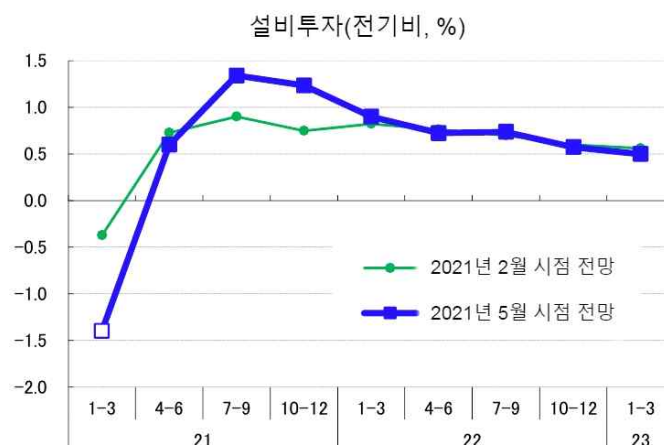
① 개인 소비



- 2021년 1분기의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1.4%로 4분기 이래의 감소로 돌아섬
 - 연초 긴급사태 선언으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침체되었음
- 2021년 2분기도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을 받아 정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 다만 “서비스 소비는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적인 하향 압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임(후코쿠 생명)” 등,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3분기에는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의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페이스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다만 “백신 접종이 고령자 외에도 확산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염 확대 방지 조치가 계속 취해져 개인 소비 증가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미즈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등, 신중한 견해가 많음

- 또한 “2021년 임금 인상이 2020년의 인상폭을 밑돈 것 외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강한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가게의 소득 환경은 대체로 어려움(농림 중금 종합연구소)” 등,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 지연이 소비 회복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이상으로부터 2021년도는 개인 소비의 급회복은 어렵다는 견해임
- 올 7월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기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음
- “개최된다고 해도 관객수 제한에 의해 직접적인 수요 환기 효과는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일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도 경기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후코쿠생명)”, “관객 제한 등 다양한 규제 하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신킨중앙금고 지역·중소기업 연구소)”
- 한편 2022년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의 진전으로 감염 확대 리스크가 저감됨으로써 외식이나 여행 같은 감염 리스크를 수반하는 서비스 소비는 2022년도에 걸쳐 회복 속도가 높아짐(야마토 종합연구소)” 등, 백신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함으로써 내수 회복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는 조사기관이 많음
- “코로나19 수습 후에는 정부가 GoTo 캠페인의 전면 재개 등 수요 환기책을 밝힐 것으로 예상(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스)” 등, 정부의 경제 대책에 의한 지지를 예상하는 견해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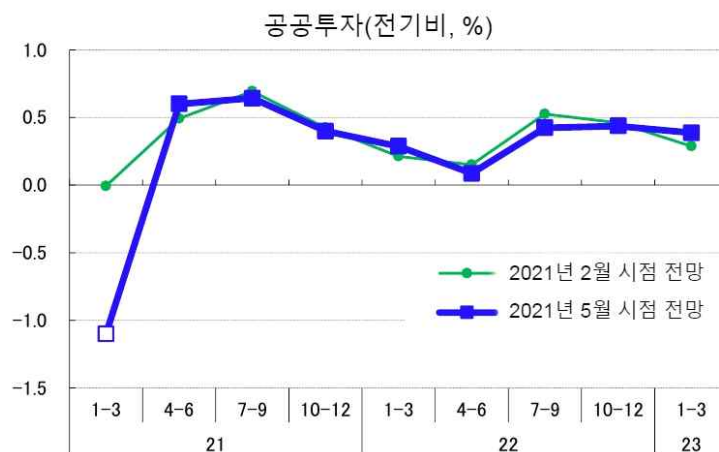
②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2021년 1분기에 전기대비 ▲1.4% 감소로 돌아섰지만, 이는 2020년 4분기에 동+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동에 의한 측면도 있어 전체적으로 회복 기조라는 견해가 많음

- 세계 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이나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는 설비 투자의 증가 기조가 계속 될거라 보임(하마킨 종합연구소)” 등,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분야별로는 경기에 좌우되기 어려운 정보화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등이 뒤따르고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미즈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등, 기계투자와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는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숙박시설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는 급하지 않은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계속되어 약한 움직임이 전망됨(후코쿠 생명)” 등,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을 받기 쉬운 비제조업이나 대면 서비스업의 건설 투자 등이 향후의 하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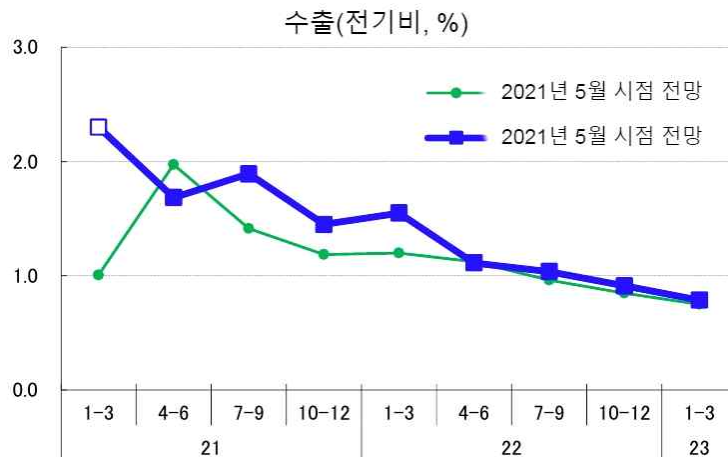
③ 정부지출



- 정부소비는 21년 1-3월기에 전기대비 ▲1.8%로 마이너스로 돌아섬
- GoTo 트래블의 상승분이 줄어든 것이나, 1월의 긴급사태 선언에 의한 대면 진찰 기피로 인한 의료비 감소에 의한 것임
- 2020년도 코로나19 대책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3.1%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이후 “백신 접종 비용 등의 지출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실질 정부 최종 소비 지출은 증가 경향일 것으로 전망됨(미즈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등, 당분간은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책 관련 지출 증가를 전망하는 조사기관이 많음
- 공공투자는 21년 1분기 대비 ▲1.1%로 7분기 만에 감소했으나 재해복구와 ‘국토강인화’를 위한 공공공사로 회복 기조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 “계속해서 방재 등의 국토 강인화를 위한 공공 공사가 진척됨(후코쿠생명)” 등,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의 ‘국토 강인화’ 대책 공사 등을 이유로 계속 증가 추이가 예상되고 있음

④ 수출



- 2021년 1분기 수출은 다른 수요 항목의 침체 속에서 세계경제 회복에 견인되는 형태로 전 분기 대비 +2.3%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재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
- 향후도 “대규모 경제 대책에 의한 미국 경제의 회복 가속화를 배경으로, 지금까지 수출을 견인해 온 중국용에 가세해 미국용이 수출의 회복을 견인(미츠비시 종합연구소)” 등, 주요 상대국에서 경기회복의 기세가 증가하는 것부터, 호조 추이가 예상되고 있음
- 리스크 요인으로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에 의한 자동차 등의 생산감소에 의해 생산·수출이 억제되는 것을 들 수 있음
- 다만 “해외시장의 견실한 자동차 수요를 감안하면 공급 제약이 해소된 후에는 생산·수출을 다시 전망할 수 있음(다이와 종합연구소)”, “반도체의 출하가 궤도에 오른 후에는 반동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메이지야스다 종합연구소)” 등, 영향은 일시적인 것에 머무른다는 견해가 많음

< 원본자료 >

大柴千智『民間調査機関の経済見通し（2021年5月）』「21年度は一進一退が続く見通し. 22年度はワクチン普及により経済正常化へ」第一生命経済研究所(2021.05.27.)